



numbers

vol. 303

2024 다문화가족 실태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응급실 내원 10·20대 자살 시도자 실태
- ② 유치·초중고 학생 수 변화

2025.9. 16.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다문화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2024년 12월 기준) 한국 내 이주민 수는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하고 있다.

최근 조사(2024)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주 연령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60%)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가 65%를 차지해 생활 기반은 점차 향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한국 생활 적응의 경제적·언어적 장벽 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넘버즈 303호>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통합을 더욱 지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비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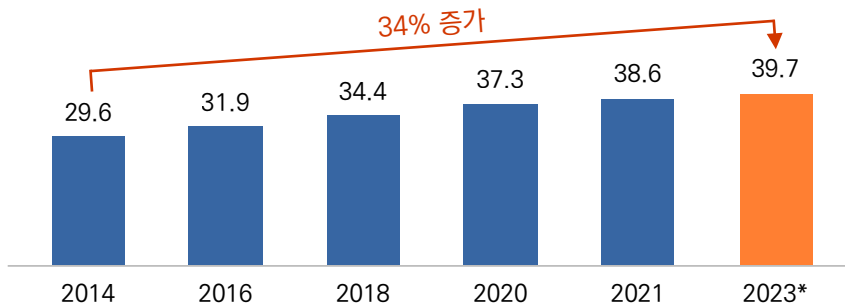
01

[규모와 현황]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여 다문화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해당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의 규모를 살펴 본다.
- 행정안전부/다누리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9.7만 명으로 10년 사이 34% 증가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추이 (만 명)



※출처 : 다누리(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결혼이민자 및 인자·귀화자 기본현황 (<https://www.liveinkorea.kr/web/lay1/S1T38C48/contents.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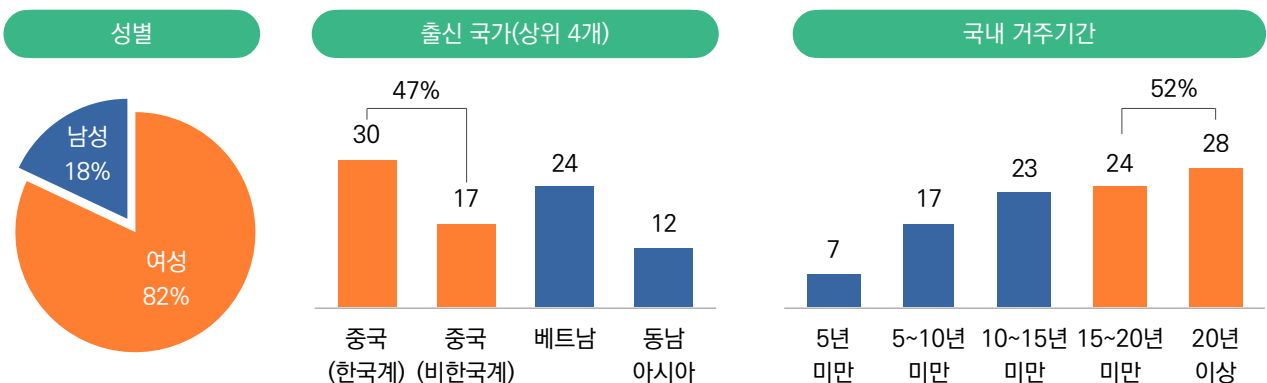
※원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각 연도별 자료 참조

*2023년 자료 :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4.10.

결혼이민자·귀화자 절반(52%), 15년 이상 장기 거주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여성이 82%로, 남성(18%)보다 월등히 많았다.
- 출신 국가는 중국(한국계 30%+비한국계 17%)이 절반 가까이(47%)를 차지했고, 베트남(24%)이 뒤를 이었다.
- 국내 거주기간은 '15년 이상 거주자'가 52%로, 다문화 가구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결혼이민자·귀화자 일반 특성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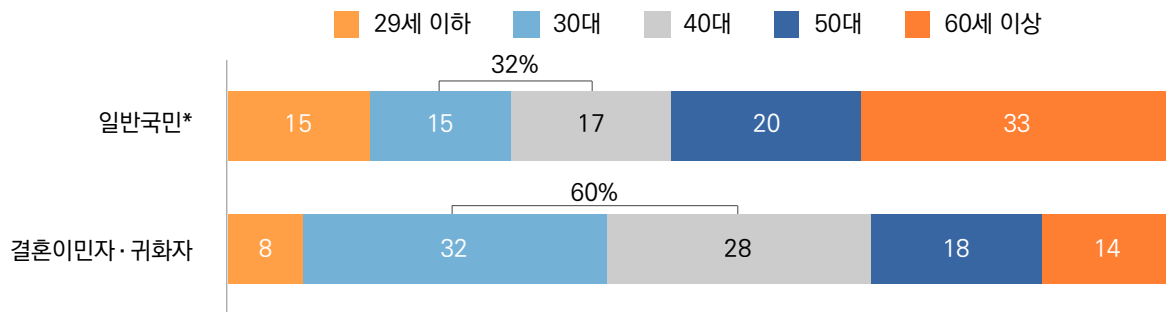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결혼이민자·귀화자 3040세대 비중, 일반 국민의 2배!

-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0대 32%, 40대 28%로, 3040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국민(3040세대 32%)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주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세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연령대별 구성비 (18세 이상,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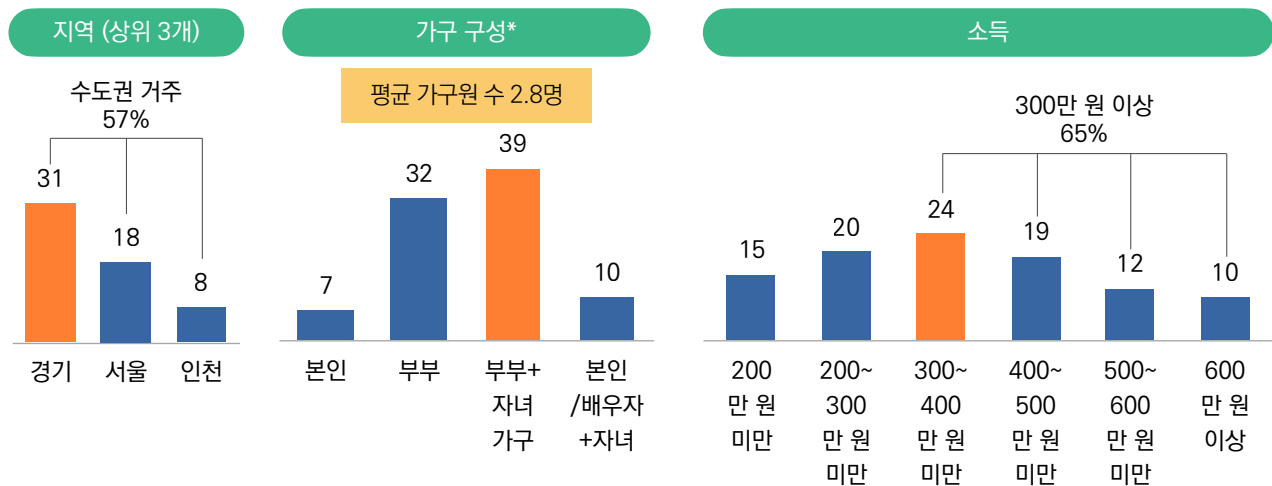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일반국민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

다문화 가구 3가구 중 2가구,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일반 특성을 보면, '수도권 거주' 비중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이며, '부부+자녀 가구'(3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소득은 '300~400만 원 미만'(24%)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3가구 중 2가구(65%)가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다문화 가구 일반 특성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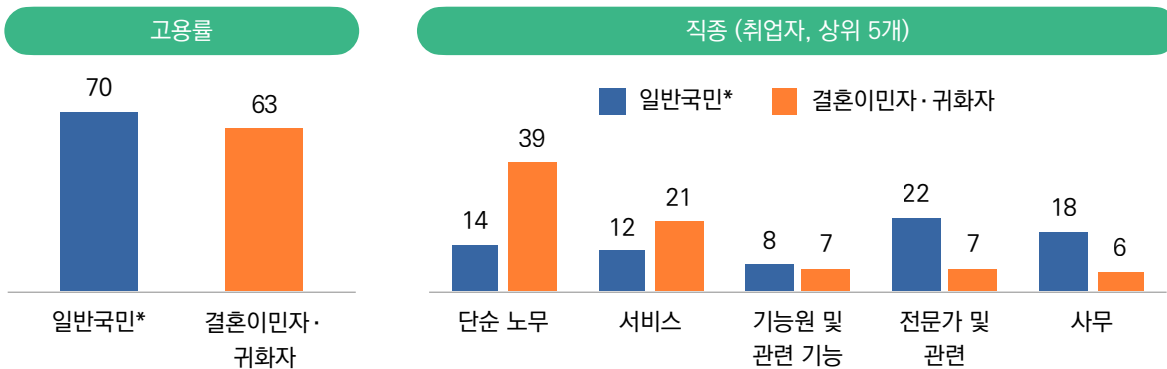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기타 제외

일반국민 대비,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 3배 높고, '전문가·사무'는 1/3 수준!

- 경제활동 수준을 가능하고자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일반국민의 고용률 및 직업 직종을 비교해 살펴본다.
- 고용률은 결혼이민자·귀화자 63%로 일반국민(70%)보다 낮았다.
- 직종별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은 결혼이민자·귀화자(39%)가 일반국민(14%)보다 3배가량 높은 반면, '전문가·사무 종사자'(13%)는 일반국민(40%)의 1/3 수준에 불과해, 다문화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자격이나 기술보다는 노동력 자체가 중심인 직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고용률 및 직종 분포 (2024,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일반국민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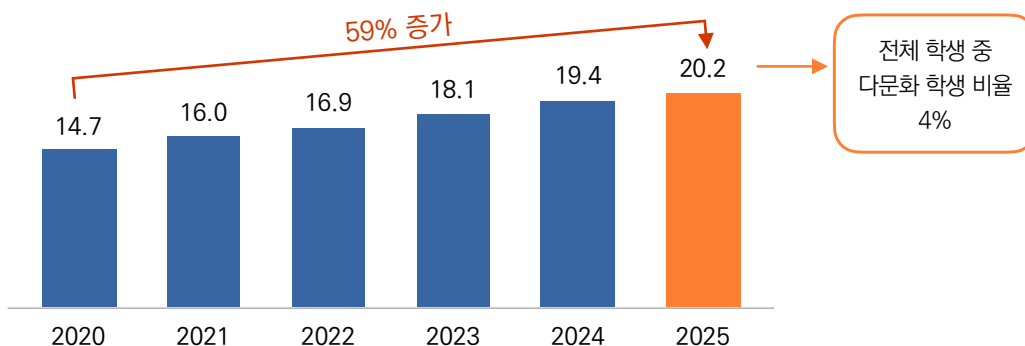
(고용률 :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2&upCd=3>)

(직업별 취업자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8S_NEW&conn_path=12)

다문화 학생 수, 지난 5년 새 59% 증가!

- 이번에는 다문화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본다. 국내 학령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20.2만 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5년간 무려 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다문화 학생 수 추이 (만 명)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5.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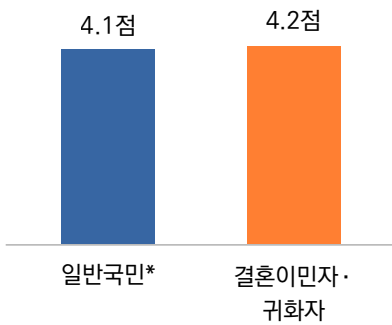
02

[가족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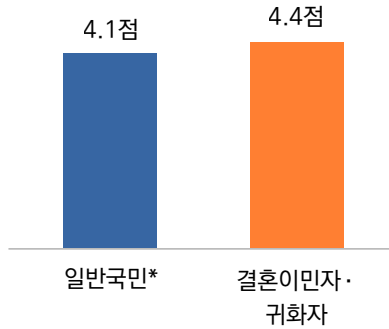
다문화 부모, 자녀 만족도는 일반국민보다 높은 편!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자녀 만족도'를 한국의 일반국민과 비교해 살펴본 결과(5점 척도), 배우자 만족도 평균은 4.2점, 자녀 만족도는 4.4점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만족도는 한국 일반국민과 차이가 없는 반면, 자녀 만족도는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그림] 자녀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일반국민 출처 : 통계청, 2024 사회조사 결과, 2024.11.12.(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척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로 환산하여 추정치를 구함)

자녀 양육의 어려움, 만 5세 이하의 경우 '긴급돌봄'!

-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묻은 결과, 만 5세 이하 자녀 부모는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반면, 만 6~24세 자녀 부모는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을 1순위로 응답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림]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당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상위 3개, %)



[그림] 만 6~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당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상위 3개,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7.31.(전국 다문화가족 16,014가구, 면접조사)

*어려움 없음 응답 제외

0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국민 87%,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류 긍정적'!

- 이번에는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인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본다.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동의율)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국민 87%는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76%는 '서로 사랑한다면 인종과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에는 절반 이상(54%)이 동의해, 앞선 항목에 비해 동의율은 다소 낮았지만, 결혼 수용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긍정률을 보였고, 다문화 결혼에 대해서는 더 동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다문화 가정/인종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일반국민,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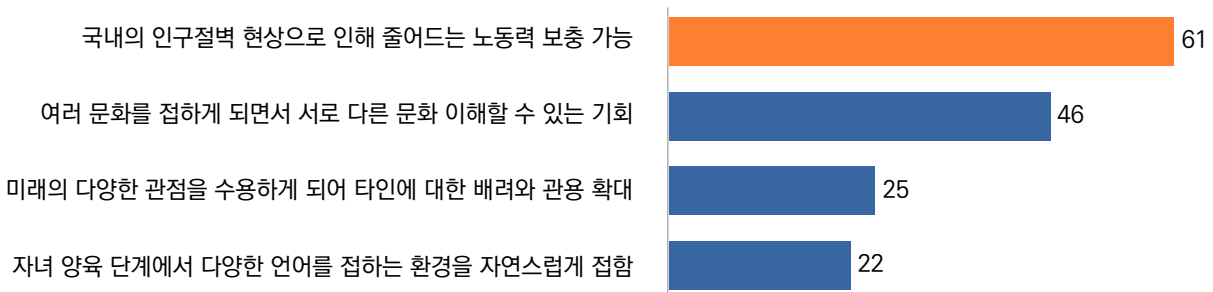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 조사, 2024.07.24.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09.~05.14.)

다문화 가정 증가의 장점, '노동력 보충' 기대!

-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장점을 일반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결과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보충 가능성'(61%),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46%)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그림] 다문화 가정 증가의 장점 (일반국민, 1+2순위, 상위 4개,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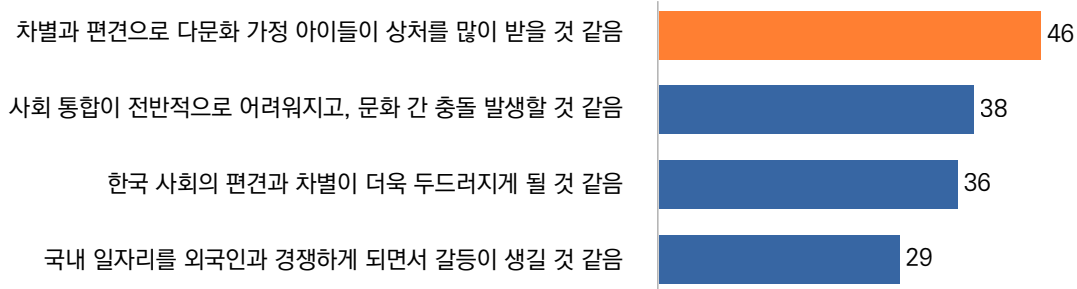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 조사, 2024.07.24.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09.~05.14.)

다문화 가정 증가의 단점, ‘다문화 아이들이 겪을 차별/편견!’

- 다문화 가정 증가의 단점으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겪을 차별·편견’(46%), ‘사회 통합의 어려움 및 문화 충돌’(38%), ‘한국 사회 내 편견과 차별 부각/심화’(36%) 등이 지적되었다.
- 앞서 장점과 종합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 증가가 인구·문화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통합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다문화 가정 증가의 단점 (일반국민, 1+2순위, 상위 4개, 중복응답,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다문화 사회(가정) 관련 인식 조사, 2024.07.24.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09.~05.14.)

이번호 요약

1. 한국의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10년 새 34% 증가!

- 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9.7만 명으로 10년 사이 34% 증가하며(2014년 29.6만 명),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 결혼이민자·귀화자 3040세대 비중, 일반 국민의 2배!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3040세대가 60%로, 일반 국민(3040세대 32%)보다 2배가량 높아, 한국인 평균보다 훨씬 젊은 층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87%,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류 긍정적'!

- 다문화 가정/인종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국민 87%는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76%는 '서로 사랑한다면 인종과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존재만으로 특별한 다문화 교회 (신치현 저, 이레서원)

관련 성경 구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레위기 19장 33~34절)

목회 적용점

이번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차지하는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매우 젊은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직종 분포를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우리 사회 기반 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가·사무직 비중은 1/3 수준에 머물러, 사회적·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장벽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다문화 가정을 단순한 '돕는 대상' 혹은 '손님'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회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제적 기여를 존중하며, 신앙 안에서 공동체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가 능숙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예배 통역, 문서 번역 등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성도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자국의 문화/음식을 소개하는 것 등)를 교회 차원에서 기획할 수도 있다.

둘째, 직업적 취약성이 신앙·생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회 차원의 실질적 돌봄이 필요하다. 직업 훈련 연계, 자녀 교육 지원,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교회가 연결 창구가 되어 제공할 수 있다. 또, 교회 내 성도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일대일 또는 가족 단위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배타성이 강한 한국인 정서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만만치가 않다. 교회가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노력들을 통해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지체이자 한국 교회 미래의 동반자로 살아가도록 세워가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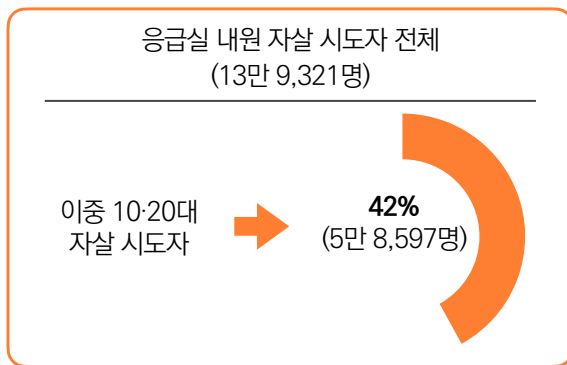
1. 응급실 내원 10·20대 자살 시도자
실태
2. 유치·초중고 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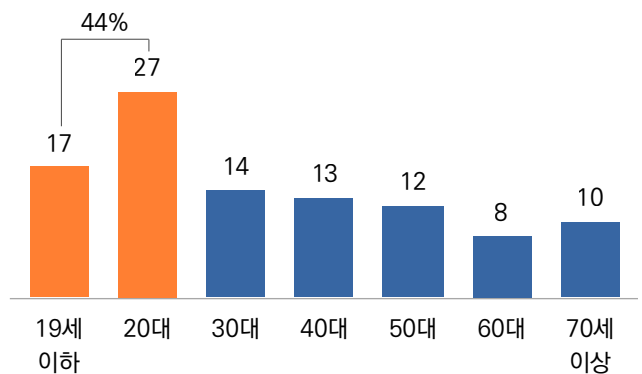
[응급실 내원 10·20대 자살 시도자 실태]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10·20대 비중 42%!

-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청년층 자살 문제도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자살 시도자의 응급실 내원자 현황 자료'(최보윤/박희승 의원실)를 통해 10·20대 자살 시도 실태를 살펴본다.
-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는 약 13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0대는 5만 8,597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연령대별 분포(2021~2023년)를 보면 '20대 이하'는 44~4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청소년/청년층의 자살 시도가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림] 응급실 내원 10·20대 자살 시도자 비중
(2020.01~2025.06 기준)



[그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연령대별 비중 (2023, %)



※출처 : 중앙일보, 아프니까 청춘? 1020 심각하다...자살시도 응급실행 42%가 이들, 2025.09.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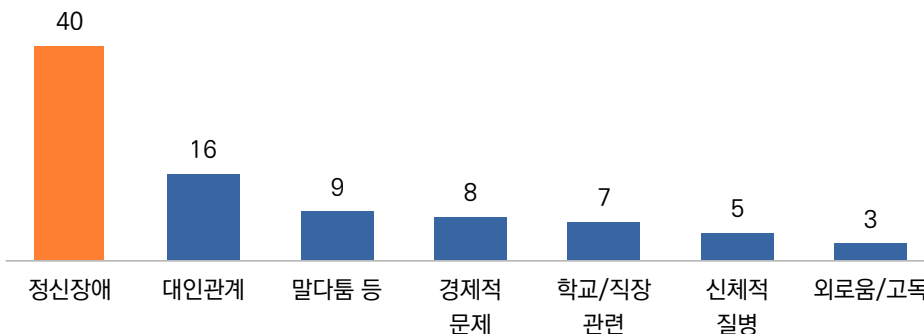
※원출처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2025.09./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현황, 2024.09.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10·20대 자살 시도 동기, '정신장애'가 최대!

- 응급실에 내원한 10·20대 자살 시도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정신장애' 요인이 40%로 가장 컸고, 이어 '대인관계'(16%), '말다툼 등'(9%), '경제적 문제'(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청년층 자살 시도에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자살 시도 동기 (2025, 복수응답,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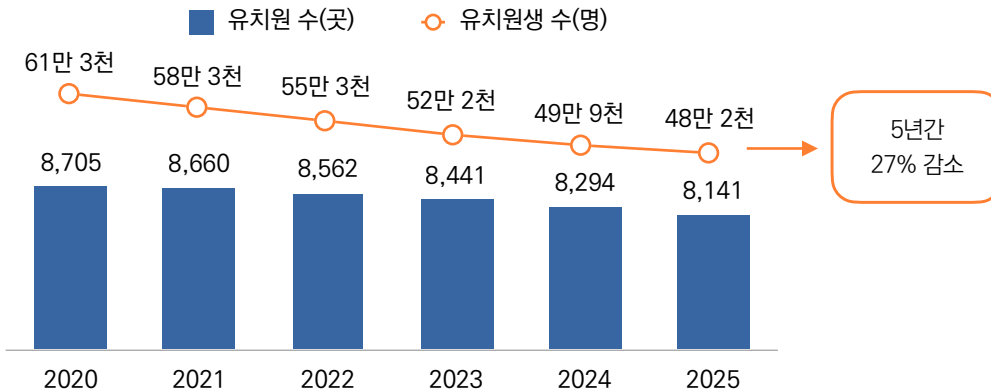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아프니까 청춘? 1020 심각하다...자살시도 응급실행 42%가 이들, 2025.09.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061>)



[유치·초중고 학생 수 변화] 국내 유치원, 지난 5년 새 560여곳 문 닫았다!

- 저출생·고령화 요인으로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종종 기사로 접하게 된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실제 문을 닫는 유치원 수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8,705곳이었던 유치원은 2025년 8,141곳으로 줄어, 5년 사이 564곳이 사라졌고, 유치원 생도 2025년 48만 2천 명으로 5년 전(61만 3천 명)과 비교해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유치원 및 유치원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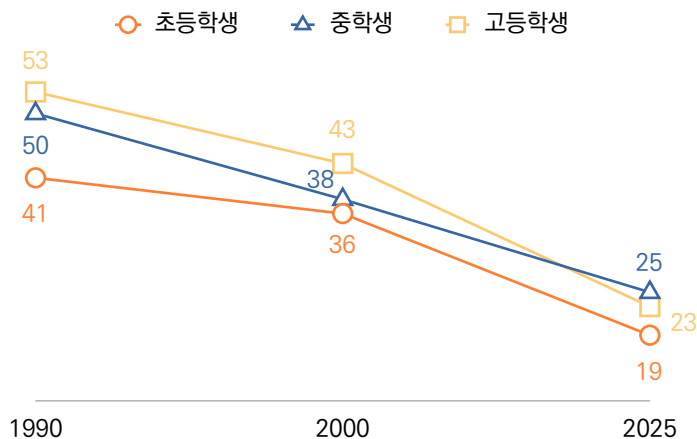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5.08.28.

35년 전(1990년)과 비교, 초등학교 학급당 41명→현재 19명!

- 이번에는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본다. 2025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3명으로, 35년 전인 1990년과 비교하면 전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림]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 (명)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5.08.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34호 \(2025년 9월 2주\)](#)

- 대통령 취임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 검찰 개편안

["국회의원 중 74명, 당선 뒤 보유 주식 늘어... 제2의 이춘석 막아야"](#)

한국일보_2025.9.9

[이 대통령, '20대 남성 긍정평가' 41.5%...성별·연령 통틀어 최저](#)

한겨레_2025.9.11.

사회 일반

[2030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2천700만원, 양부모가구 절반 수준](#)

연합뉴스_2025.9.11.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연합뉴스_2025.9.14.

[밥값 뿔자 삼각김밥·콜라로... 직장인들 '책상 앞 슬픈 점심'](#)

조선일보_2025.9.9.

[부동산이 뭐라고 '미혼모 자처'...이 기현상, 2021년부터였다](#)

중앙일보_2025.9.11.

[\[2025 가족인식조사\] 가정 내 의사결정권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9.9.

[2025 복고\(레트로\) 문화 및 명작 콘텐츠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9.9.

아동 · 청소년 · 청년

[2025년에도 여전한 '콩나물교실'...전국 중학교 3분의1 과밀학급](#)

연합뉴스_2025.9.11.

[학교 폭력, 폭행은 줄고 정서·성 폭력은 늘어... 정신건강에 더 큰 타격 입힌다](#)

헬스조선_2025.9.11.

[韓청년 대학진학률 17년째 OECD 1위](#)

매일경제_2025.9.9.

[\[침묵의 SOS, 10대들의 비자살적 자해\], \(국민일보\)](#)

[\(상\) 내 몸을 해치는 아이들 : 벼랑끝 몰린 10대들... 상처 내며 무너진다 _2025.9.1.](#)

[\(중\) 열악한 현실 : 청소년들 즐겨 찾는 SNS, 자해 유해정보 온상 _2025.9.2.](#)

[\(하\) 고난도 치유방정식 : 청소년기 특성 맞춘 전문적 프로그램·재정 지원 절실 _2025.9.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늙고 외로운 서울… 고령 가구 첫 30%대, 나홀로族도 40%](#)

조선일보_2025.9.16.

경제 · 기업

[한국 1인당 GDP, 당장 올해부터 대만에 따라잡힌다](#)

연합뉴스_2025.9.14.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국민일보_2025.9.11.

[올해 누적 임금체불 1조3421억 원… 절반은 수도권에서](#)

한국일보_2025.9.7.

국제 · 환경

[‘미친 폭염’에 애 덜 낳는다?…과장된 우려가 아닌 이유](#)

한국일보_2025.9.11.

[이스라엘·일본, 왜 유엔에 분노할까?](#)

한국일보_2025.9.10.

건강

[만성질환 사망 확률 韓·日 여성 제일 낮아](#)

조선일보_2025.9.13.

["덜 해롭다" 믿었는데…전자담배, 니코틴 중독 더 심각했다](#)

중앙일보_2025.9.8.

[불면증 주 3회 이상 나타나면…“치매 위험 40% 높아”](#)

동아일보_2025.9.11.

[‘세계 최고’ 암 병원 10곳 중 3곳은 한국에… 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대병원 선정](#)

경향신문_2025.9.11.

기독교 · 종교

[개신교인 중 극우성향 22%… 국내 전체 비율과 유사](#)

국민일보_2025.9.12.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연구소 소식

출판기념회 초대 및 책 구입 안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출판기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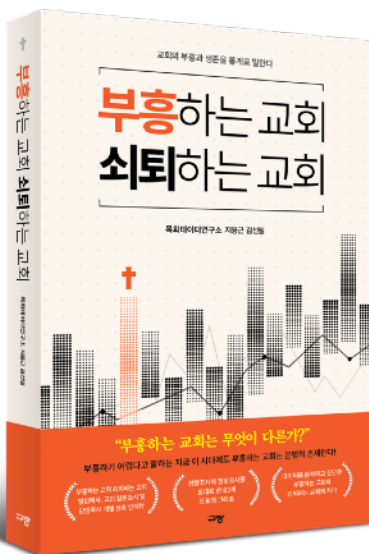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책을 오는 9월 말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4:00 ~ 15:30
- 2)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 3) 프로그램 : 기념식, 주요 내용 발표 및 저자 소개, 질의 응답

※ 오시는 분들(참석 신청자)에 한해 책 1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책 구입 안내

참석 신청(선착순 100명)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